

# 광주 AI사관학교 ‘풀패키지 사후관리 시스템’ 가동

AI융합사업단, 커리어지원센터 운영  
졸업생 취업·창업·정착 전방위 지원  
시제품 제작·견습생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창출·AI산업 생태계 활성화”

광주인공지능(AI)사관학교가졸업생의 취업·창업·현장 정착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풀패키지 사후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년 AI 인재들의 실질적인 커리어 성장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광주지역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AI 사관학교 내에 ‘AI 커리어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실천형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AI 커리어지원센터’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면접 준비 프로그램 △취업 코칭 및 경력 설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심리 상담 및 정서 관리 △네트워킹 및 직무 멘토링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지역 AI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사 후에는 정착 상담, 업무 적응도 점검, 커리어 로드맵 설계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수료생을 위한 ‘AI 특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링, IR 피칭, 실전 창업 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AI 견습생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관내 AI 기업

에 수료생을 연계해 최대 5개월간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이후 정규직 채용으로의 연계를 유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수료생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사관학교 동문회’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동문회는 연 1회 정례 개최되며, 취·창업 성공 사례 공유, 산업 동향 발표, 기술 교류 및 협업의 장으로 수료생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커리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사관

학교 교육 이후에도 수료생의 진로 설계와 현장 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 사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AI 커리큘럼을 갖춘 AI인재 양성사업으로,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 광주은행, 대학생·청년 금융애로 해소 상품 출시

‘KJB햇살론유스’…금융 문턱 낮춰

광주은행은 17일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보증서 기반 서민금융상품인 ‘KJB햇살론유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JB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출시된 상품으로, 취업 준비생, 1년 미만의 사회초년생, 청년 창업자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

상 만 34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200만 원으로, 일반생활자금 및 특별용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 보증서 기반 대출상품이다.

특히, 대출금리는 연 3.5%의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과한 후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방문

또는 광주와(Wa)뱅크(APP) 및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약정할 수 있다.

자격조건에 따라 최장 8년의 거치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최장 7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

전남지역 장애인 대상 지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전남도와 협업으로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장애

인으로 대상 차량이 본인 명의 차량이거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 소유자다.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1만1415대를 보급해 왔으며, 올해에도 1400대를 선착순으로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비용은 도로공사와 전라남도, 단말기 판매업체가 전액 부담하며, 신청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주전남본부 52개 톨게이트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단말기 수령 후 지문 등록은 도공 광주전남본부 관내 7개 지사 또는 전남지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삼성전자, 6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 ‘글로벌 1위’

북미 시장 점유율 27.5% ‘역대 최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 2019년 첫 글로벌 1위 달성 이후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24년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주사율 144Hz 이상) 시장에서 금액기준 21.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오디세이 아크 △오디세

이 OLED △오디세이 3D 등 새로운 제품과 세계 최고 기술로 게이밍 모니터 시장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해 북미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기준 27.5%의 점유율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34.6%를 차지하며 2년 연속 OLED 모니

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OLED 모니터 출하량은 124만대로,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6배 넘게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OLED 모니터라인업을 강화하며 ‘오디세이 OLED G8’ 27형과 32형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히 ‘OLED G8’ 27형은 166 PPI(인치당 픽셀 수)를 지원해 매우 촘촘한 화질을 제공하고, ‘OLED 글레어 프리(OLED Glare Free)’로 빛 반사를 줄여 게임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박소영 기자



롯데백 광주점, ‘트래블 라인’ 선보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쿠론 매장

에서는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여행용 캐리어와 가방을 만날 수 있는 ‘트래블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가벼운 소재와 컬러풀한 디자인, 그리고 무소음 바퀴로 패션과 편의성 모두 잡은 캐리어 뿐만 아니라 여행 및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코디로 활용 가능한 가방 등 필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신규 라인 출시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트래블 라인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3개 구매 시 30%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경총·산업인력공단, 일자리 창출 지원 ‘맞손’

오늘 상생 업무협약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8일 이용섭 전 광주시장 초청 특강 금요조찬 포럼 시작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및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중소기업 임직원 및 지역 내 숙련 기술 확산 지원에 필요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유관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광주시 제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물적·인적 인프라 지원 △사업 홍보 및 기관 간 네트워킹 확대 등이다.

한편 금요조찬 포럼참석을 희망하는 사람과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재테크 칼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를 유예했다. 중국의 수출 품목 중 스마트폰 등은 사실상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도 취했다. 가히 트럼프다운 모습이다. 트럼프는 미국 내·외의 반발 등으로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말했던 입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달라진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의 민낯을 세계에 드러냈다. 즉흥적인 관세 쇼를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

## 트럼프의 관세 쇼 이유, 분할 투자는 어떨까

계에 대한란을 일으키더니 역시 즉흥적으로 후퇴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관세 쇼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투자자들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전략을 재점검 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는 트럼프가 어떤 업종을 놓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본인이 얼마나 가볍고 신뢰할 수 없으며 무지한 사람인지를 이번의 막장 관세 쇼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줬다.

사실상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고 성공이 불가능한 우매한 정책이었다. 다만 고집스럽게 밀고 간다면 그 과정에서 모두가 피를 흘리는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점이 두려울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관세는 적더라도 관세는 부과될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비트코인은 트럼프 시대에 여전히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유효한투자대상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상화폐사랑은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기관과 대형 펀드 우량기업들을비롯한각국의 정부 등 소위 고래들의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심각한 미국 부채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으로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투자 분야는 한국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이 분야는 세계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기자동차는 물론 AI, 로봇 등 신성장 산업에서 꾸준한 수요도 예측된다. 조선, 방산 등의 분야도 유력한 투자처로 보인다. 조선은 트럼프가 아예 공개적으로 한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방산도 트럼프의 각국 방위비 증강 정책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비관적이지도 않고 코인, 증시 등 자산시장이 하락해 있는 지금은 분할 투자를 재개할 시점이다.